

보도일시 (인터넷) 2023. 3. 27.(월) 11:00,
(지면) 3. 28.(화) 조간

배포 2023. 3. 27.(월) 06:00

캐나다 한국 굴 위생 인정, 100만불 수출 다시 기지개

- 한국 패류위생계획에 대한 캐나다 당국의 동등성 평가 결과 적합 판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캐나다 위생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 동등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냉동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해양수산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수출용 패류에 대한 종합 위생관리계획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냉동굴을 계속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대한 사전서면자료를 검토하고(‘20.3~’21.12), 지정해역 위생관리, 냉동굴 가공 시설, 실험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2.4~5).

* Safe Food for Canadians Act(SFCA): 수출국의 패류 위생관리시스템에 대한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혹은 영상실사) 이후 수출 승인

그리고 올해 3월, 캐나다 위생당국은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캐나다로 냉동굴을 지속 수출하기에 적합하다는 최종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번 동등성 평가는 우리나라 냉동굴 위생관리체계가 캐나다 위생당국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캐나다 굴 수출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식품 소비의 첫번째 기준이 ‘안전’이 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굴의 안전성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해역, 양식장, 가공공장까지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수산정책실 수산물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0-5416)
<공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위생가공과	책임자	과 장 목종수 (051-720-2610)
		담당자	연구관 유홍식 (051-720-2630)
<공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책임자	과 장 강문표 (051-400-5710)
		담당자	사무관 김광수 (051-400-5730)

